

하루를 시작하며



김 문 정
시인

꽃삽으로도 좋았다. 물이 빠져나가 반반히 다져진 넓은 모래톱. 한 지점을 골라 삽날을 세우거나 눕혀 쫓는다. 어깨 넓이만큼의 폭으로 찬찬히 바닥을 긁는다. 서걱거려다 달걀, 걸리면 거의 조개다. 쪼그린 다리가 저리면 아예 들어앉는다. 엉덩이로 조금씩 이동할 뿐 좀체 일어날 기미가 없다. 모래범벅에다 자잘하지만 무늬도 다양해 깨는 재미가 쏠쏠하다. 조금 더 바다로 나아가면 발목에 찔랑거리는 느낌이 좋다. 물의 온도는 시원하고도 따뜻하다. 선 채로 발을 비벼대면 바닥이 파이면서 밝힌다.

먹을 수 있되 먹을 수 없는

휘둘던 모래알갱이가 찾아들면 작은 물고기와 새우들도 살랑거린다. 바위와 자갈 틈에서 고동, 보말을 줍고 참게를 잡거나 거북손을 판다. 양이 많건 적건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이제는 꿈일 듯하다. 슬프다.

10년 전, 안전을 장담하던 도요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방출방향을 정식 결정하려다 보류했다. 탱크 용량이 거의 다 찼고 더는 미룰 수 없단다. 유보일 뿐 포기는 아니다. 국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처리수’라 바꿔 부르고, 희석해서 무해하다 강조하는 뻔뻔함. 가장 싸고 손쉬운 방법을 고르고 가장 힘없는 곳을 택하는 졸렬함. 흐르고 흘러 어디든 가고 섞일 텐데 내놓고 버리겠다는 무책임함. 그런데도 먼 애기로 방사선 수치는 막연하고 피폭에는 무감하다. 꼼꼼히 따져 묻지 않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 나라 전체가 오염수에 갇힐 것이다. 먹을 수 있되 먹을 수 없는, 미래의 바다는 단지 욕지를 잊는 뱃길이거나 멀리 두고 보는 풍경이 될 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단지원전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재난을 당한 벨라루스의 이야기다. 100여명을 10년 넘게 인터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사랑을 담았다. 그들은 살아 있는 블랙박스다. 원전이 없었어도 뚝배기로 묘지가 되어버린 마을. 국경은 의미가 없다. 인접했던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은 피폭, 체르노빌 이후의 출생자들은 암·신경정신질환·지적장애·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앓고 있다. 계속되는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이 의심되는 ‘체르노빌 장애’다. 위험천만한 사고 수습 현장의 그들

은 1급 장애인에 됐고, 두려움에 대한 보상은 알량한 돈 몇 톨과 죽음이다. 별안간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고, 문득 심장이 멎는다. 갑자기 죽고 계속 죽는다. 누구의 잘못일까. 30년 넘게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체르노빌 이후, 모든 원전을 폐쇄한 나라가 있는 반면 일부는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좋은가.

작가의 말처럼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은 쌍둥이이다. ‘반핵(反核)’이 ‘반전(反戰)’으로 치환될지 언젠 전등과 무기가 한배에서 나왔다는 걸 대개는 까맣게 잊는 듯하다. 나는 탈 원전에 대한 이견이 이상하다. 핵 없는 다른 길.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 표본은 충분하고 두려움은 충분하다. ‘체르노빌은 우리의 미래다!’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면 후쿠시마는 우리의 미래다.

사설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의미 있나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치제가 보장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의 공동으로 국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론수렴을 통해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안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시민이 행정시장을 뽑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의 힘을 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행정시장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이 될지 개악이 될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여전히 ‘기대이하’다

도내 어린이들 등하굣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여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 대폭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들이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최근 2년(2018~2019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주변 300m 구간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도교육청 집계결과 35건에 이릅니다. 적지않은 수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3월부터 보호구역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되고, 사회 이슈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사회적 관심과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통학로 확보’가 매우 미흡해 총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가 겨우 40개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3개교는 일부만 했거나 미확보입니다. 학교둘레(학교 윗타리 구간 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도 84개교에 그칩니다. 사고예방의 핵심인 통학로 없이 어린이들이 도로를 따라 차량과 함께 통행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인 현실 앞에서 사고는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총 7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중 여덟개 지정된 곳이 322곳(42%)에 불과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지정률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 안전시설 확대 등의 단기방안에 그치지 말고 보호구역과 통학로 지정 확대 등의 근본 대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전요원 배치와 교통시설 몇 가지 설치 요구했다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할 것인지 답합니다.

열린마당

나부터 실천하자



김 홍 배
제주문화화원관리소

청렴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기 위해서 모두의 가슴속에 담겨두어야 할 윤리적 사회가치이다. 청렴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특히나 필수적이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해지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묵묵히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행정을 펼쳐야 국민들도 믿고 발맞춰 호응해 줄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다면 국민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는 국가 신뢰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착해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청렴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다.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행동이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향유의 유혹을 뿌리치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 모든 개개인이 노력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라는 태도가 아닌 ‘나부터 청렴해지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청렴문화가 형성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행정 국민을 1순위로 두고 생각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오락가락 주정차 단속 의지 ‘눈살’

제설작업 등 혼선 야기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데다 실질적 단속에 앞서 시설물 설치에 공을 들이면서 눈살.

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방향 2km 구간에 규제봉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CCTV와 자치경찰단 인력을 투입,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 하지만 도는 연초부터 정책방향을 유예와 단속 입장을 오갔고, 단속실적도 전무한 데다 앞으로 비상차량이나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하며 혼선을 야기. 백금탁기자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제주시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총 176건에 1억 12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는 자전거보험은 제주시가 1년 단위로 가입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

시 관계자는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이나 7일 이상 입원시,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관련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

○…서귀포시가 11~12월 사이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 38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진행. 위생관리등급의 위생·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

서귀포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엔 출입검사 2년 면제, 중점관리업체엔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 등 차등 관리한다는 계획. 현영종기자

감사의 말씀

지난 11월 5일 별세하신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자은 산형(향년 72세 · 동남어린이집 대표)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애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드리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부인 고춘자

아들 이창홍 며느리 정애자

창용

승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 망 장신영 (1921. 2. 21 생)
•최후주소 : 제주시 동화로1길 35, 304동 103호(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상기자는 2020년 8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4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10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동화로1길 35, 304동 103호(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대표 양인석

2020년 11월 1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현양옥, 양인석, 양혁준, 양순화, 양우성, 김희정, 김희선, 김정연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 망 김신영 (1934. 1. 25 생)
•최후주소 : 제주시 한경면 성굴로1길 16-2, (신창리)
상기자는 2020년 7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4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부양 사해구 대동439번길 20, 204동 2403호(대동, 신영아파트) 송달장소 : 제주시 남평로3길 7, 3층(이도아동, 성수빌딩) 송달영수인 : 법무사 정기면

2020년 11월 1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박선자, 박선옥, 박선일, 박상선, 이수운, 이현동

분 실 공 고

● 분실물 : 오토바이 서류
차대번호 : RLHJF81K3LY005376
차 종 : pcx125(ww125)
전화번호 : 010-5672-4325
차 구입처 : 제주 신제주 오토바이
차 출고지 : 혼다 목포지점
본인 주소지 : 동광로1길30 501호

상기 서류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위 공고인 현 지 성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농지.전.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토직후 심심마음 작물과 소독

제주 먹고사리뿌리와등글레뿌리

텃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30평]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와농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